

## Session 10 예수님에 대한 16가지 묘사 :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Sixteen Descriptions of Jesus : Preparing for the End Times)

### I. 소개

- A. 계시록 1-3장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장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성경의 어느 다른 곳보다 더 그분의 자신의 이름에 대해 계시하시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이신다. 이 말씀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일하심에 있을 영광과 재난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에 대한 이러한 계시 안에서 성장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연구와 기도를 해나가야 하며, 이 진리들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함으로 사단의 공격을 대적해나가야 한다.
- B. 이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밝혀주는 예수님의 이름의 16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 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계 2:1-3:14)*

### II.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붙드시며 함께 걸어 나가신다 (계 2:1-7)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1-7)*

- A.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오른 손에 일곱 별들(메신저들) 또는 사도적 리더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분은 그들을 기름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교회들의 사자(메신저)와 사도적 리더십들을 도우시며 세심하게 돌보심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의 리더십의 생명과 마음에 대해 깊이 관여하신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메신저)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 1:20)*

- B.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우편)에 대한 계시로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친절하심과(시 17:7), 즐거움과(시 16:11), 복을 주심과(시 18:35), 권능이 있으심과(시 20:6), 영광의 자리임을(히 1:3) 기록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시 17:7)*

- C.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종들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셔서, 그들을 통해 교회와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과 불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 D. 예수님께서서는 촛대, 즉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이는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 깊이 관여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그분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이들을 돕기를 원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 (창 3:8)*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 23:14)*

- E. 하나님의 종들이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어떤 일에 대한 회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과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구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 1:6)*

### III.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과 보증이 되신다 (계 2:8-11)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8-11)*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 (계 1:17-18)*

- A.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며 보증이 되신다. 여기서는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것은 이사야서(3번)와 계시록에(4번) 7번 언급되어 있다(사 41:4; 44:6; 48:12; 계 1:8,17; 2:8; 22:13).

- B.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들의 이전에 계시며, 손으로 지음을 받지 아니한 “처음”이신 분이시며, 모든 선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앓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분은 그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 C. 예수님께서서는 “나중”이시며, 우리 모두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최후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에 대해 믿을 수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그 분 손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역사의 끝을 알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 D. 예수님께서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은 죽음과 관련된 모든 잔혹한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분은 인성을 이해하시며 고통을 이해하신다. 이로 인해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모든 고통 받는 이들을 격려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사망에 대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아신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에, 순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 10:28)*

- E. 예수님께서서는 초월적이시며(처음과 나중이심)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죽었다가 살아나심).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그분이 경험하신 승리로 이끄신다. 우리는 “처음이자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

#### IV.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싸우신다 (계 2:12-17)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 2:12-17)*

- A. 예수님께서서는 검을 가지고 있으시며, 이는 그분의 입의 명령으로 인해 풀어진단다. 그분은 교회 안의 최악이건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정부건 간에,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 열심으로 대적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잠잠치 않으실 것이며, 명확하게 간섭하며 싸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결탁한 모든 것들을 향해 싸우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입의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음행과 적그리스도 정부에 대해 이겨내도록 하실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검에 대해 다섯 번 언급하였고(계 1:16; 2:12,16; 19:15,21), 이중 4번이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묘사되었다.
- B. 발람의 추종자들은 은혜 안의 자유라는 가증한 일을 가르쳤다. 그들은 술 취함과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가르쳤다. 이로써 어떤 교회의 리더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서 이방 종교 축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구원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 주어졌기에, 우리가 정결함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으로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모압 여인들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민 25장). 그리고 발람은 칼에 죽임을 당했다(민 22:23,31; 25:5; 31:8).

#### V. 예수님께서서는 음행에 대적하여 그분의 불과 심판을 풀어 놓으신다 (계 2:18-29)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 22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 (계 2:18-29)*

- A.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세벨의 음행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분의 신성과 권능을 강조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에게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불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음행을 대적하기 위해 불 심판으로 간섭하실 것이다. 그분의 불꽃같은 눈동자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 B. 예수님께서서는 불꽃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통해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부으시며,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분은 “은혜의 불”을 부으시거나 “심판의 불”을 풀어놓으시게 될 것이다. 이세벨의 영에 대한 우리의 싸움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실 것이다(눅 24:32; 행 2:1-4).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타협을 깨닫게 하시거나, 음행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풀어놓으실 것이다. 새벽 별은 새벽 미명에 가장 밝은 별(금성)을 말하며, 여기서 새벽 별은 예수님을 말한다(계 22:16). 28절에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약속되어 있다.
- C. 예수님께서서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통해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주석과 같은 발은 용맹한 용사와 같이 이세벨을 밟으셔서 승리하시겠다는 그분의 결심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대적을 그분의 발아래에 두실 것이다(시 110편). 우리는 고백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은혜의 불로 우리 마음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깨어 있도록 하시며, 그분의 대적을 다파하실 때까지 그들을 밟으실 것이다.

#### VI.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풀어놓으시며, 그분의 리더들을 불드신다 (계 3:1-5)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1-5)*

- A.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을 풀어 놓으실 권세가 있으시며,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데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있으며 기도의 삶을 기경하도록 하셔서 충만한 부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 관계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자라난다.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사 11:2)*

- B.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실 것이다. 이를 통해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그분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분은 우리를 조언하셔서(모략)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옳은(좋은) 결정을 하도록 도우시며,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취하도록 도우신다. 그분은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섬김, 시간과 재정의 사용, 건강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재능(능력)의 신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서며, 죄를 이기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충성되며, 거절과 고통과 외로움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엡 3:16)*

- D.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실 것이다(사 11:9)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10)*

- E. 예수님께서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위엄 앞에 떨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위엄 앞에 떨 때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렘 32:40)*

- F.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다(계 2:1; 3:1). “일곱 별을 가진 이”라는 말은 그분이 리더십들의 삶과 마음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과 마음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기에, 자신의 백성들을 손에 붙드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메신저)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 1:20)

## VII.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하시며, 신뢰할만하며, 권능이 있으시다 (계 3:7-13)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 11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 (계 3:7-13)

- A. 예수님께서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심에 있어서, 그분의 신실한 돌보심과 헌신을 강조하십니다.
- B.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하시다. 이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거룩하심.
1. 인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분은 죄된 백성들 가운데에서 값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셨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대 제사장이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 5:8)*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2.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초월적이시며(완전히 “다른”), 모든 것들 위에 무한하게 우월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진실하시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넘치는 약속(12절)을 주시는 분이시다.
- D.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의 궁극적인 왕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에 대한 권세가 있으시다. 예로, 예수님께서서는 권세의 문을 여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지위를 맡기신다. 예수님께서서는 현재도 모든 열방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마 28:18). 예수님께서서는 천국(마 16:19)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악마들의 영역)에 대한 열쇠 또한 가지고 계신다.
- E. 계시록 3:7-13절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최고 리더십인 쉘나에게 예언한, 그가 통치의 자리에서 제해될 것이며 이는 엘리야김으로 바뀔 것에 대한 예언에 기반을 두고 있다(사 22:15-25).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의 어깨에 “다윗 집의 열쇠”를 두셔서 왕권을 풀어놓고 닫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엘리아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엘리아김의 위치)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22:22,25)

- F. 대적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문이 열려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기를 구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그 문들을 닫으시면 그들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사울과 함께 한 3,000명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삼상 24:2; 26:2). 어떤 사람이건, 악한 영이나, 적그리스도조차도 예수님께서 여신 문을 닫을 능력은 없다.

### VIII. 예수님께서서는 신뢰할만하며, 권능이 있으시다 (계 3:14-22)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요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 (계 3:14-22)

- A. 예수님의 약속들은 틀림없으며 확실하시기에, 그분은 아멘이 되신다. 요한은 “아멘”(그리스어 *amhn*)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사용했다.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로 번역된다. “진리의 하나님”(사 65:16)은 문자적으로 “아멘의 하나님”이다. “아멘”은 약속이나 맹세(서약)의 결과에 대해 동의할 때 선언되는 말이다(민 5:22; 신 27:15; 느 5:13; 렘 11:5).
- B. “아멘”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에 대해 완벽한 동의 안에서 사셨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 동의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풀어놓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을 풀어놓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의 결과와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께 동의하기를 원하신다.
- C.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며 아멘이 되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는데, 이는 이 약속들이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 약속들은 “아멘”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약속들에 대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축복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조건적인 보증이라기보다는, 동역에 대한 초청하심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후 1:20)

- D. 예수님께서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는 그분이 믿을만하며 진실하심을 말한다. 이는 그분은 그들

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과 부정적인 사실 모두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상황이다.

- E. 그분은 계시록 3:18-21절에서 엄청난 약속들에 대해 계시하셨고, 계시록 3:17-18절에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 계시하셨다. 그분은 결코 과장하지도, 과다하게 칭찬하지도 않으신다.
- F.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근본이시다. 그분은 처음이시며, 근본이시며 권세의 “첫째”이시다. 모든 창조에 대한 권능과 권세는 그분에게서 “시작한다.”(요 1:3; 골 1:16-17; 계 1:8; 21:6) 그분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같이, 창조함을 입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 G. 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재정적인 부에 만족해 있지 않고 열심 있는 회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온 땅을 창조하셨으며, 온 땅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